

보건계열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박정희, 윤병길*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Jung Hee Park, Byoung-Gil Yoon*

Assist Professor,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y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을 살펴보고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D소재 일개 4년제 대학 보건계열 대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3.32점, 진로준비 행동은 2.87점, 학업 성취도는 3.44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성취도는 학과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성취도는 그릿, 진로준비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 만족도($\beta=.279$ $p<.001$)와 그릿($\beta=.224$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23%였다. 전공 만족도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다양한 학습 전략을 모색하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 보건계열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and to analyze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academic achievements.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n 241 students at an university in D-city. The scores for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s were 3.32, 2.87, and 3.44, respectively. The study results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academic achievements, motivation to choose major, and satisfaction with major and university. The strong and positive effects of grit and career preparation on academic achievements were found. The satisfaction with major($\beta=.279$ $p<.001$) and grit ($\beta=.224$ $p=.001$) explained 23% of academic achievements. The results suggest various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multiple factors associated with grit and major satisfaction in order to enhance academic achievements.

Key Words :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Byoung-Gil Yoon(ybksky@konyang.ac.kr)

Received July 1,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August 4,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 진로선택은 적성, 흥미, 장래희망 등 본인이 자의에 의한 선택보다는 성적에 따라 대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게 되거나 졸업 후 취업률이나 가족이나 선생님의 권유처럼 타의에 의해 학과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계열은 높은 취업률로 그동안 많은 학생의 선택을 받아 왔다[1].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적성이나 흥미가 전공 분야와 일치하지 않으면 전공학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낮은 전공 만족도로 이어져 대학생활 적응과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2, 3]. 다시 말하면 전공 만족도, 진로준비 행동과 학업 성취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학업성취도는 대학생의 학업 중도 탈락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습전략이 요구되며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5]. 보건계열 대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현장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된다[3, 6]. 보건계열 대학생은 졸업 후 대부분 전공 관련 직업을 갖게 되며 전공 관련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력으로 양성되기까지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7]. 하지만 보건계열 대학생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보건계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전문성의 향상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1]. 성공적인 적응과 성취결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8-13]. 진로준비 행동이란 자신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나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과 진로가 결정된 이후에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4].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학업 성취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15]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준비 행동, 자기 효능감, 진로 탄력성, 전공 만족도 등이 있었다. 하

지만 주로 간호대학생이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14-17],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보건계열학과로는 간호학과 이외에도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등이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졸업 후 주로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게 된다.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서의 철저한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 관련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학업성적이 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을 살펴보고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을 살펴보고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을 살펴보고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일개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병원경영학과, 응급구조학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지에 동의하고 끝까지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의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 .95,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r) .15, 관련 변인의 수를 11로 적용한 결과 178명이 적절하나 수거된 설문지 중 완결된 241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Grit)

그릿 척도는 Duckworth & Quinn(2009)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그릿[18]을 이정림, 권대훈(2015)이 수정 보완한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노력 지속적 척도와 흥미 일관성 척도로 구성되며 노력 지속성 척도는 8 문항으로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흥미 일관성 척도는 4문항으로 장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관심을 갖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정림 권대훈[1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2.3.2 진로준비 행동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 행동 검사도구(16문항)에 이명숙(2003)이 2문항의 척도를 추가한 1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박숙경(2013)이 5점 척도로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20] 신뢰도(Cronbach's α)는 .85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2.3.3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학습 결과의 총체이며[21] 학업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관심의 결과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학점을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열 대학생이 설문지를 통해 그동안의 평균학점을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2.4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K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IRB No. 2020-038-01)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6월 11일~ 6월 2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K대학 보건계열 학생에게 회수율과 응답율을 고려하여 약 400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동

의하고 진행된 설문지 273부 중에 완결된 24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이 없으며 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설문지 통해 안내하였다.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는 t-test,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하였으며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가 74명(30.7%), 여자 167명(69.3%)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21세 이하 120명(49.8%), 22세 이상 121명(50.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90 ± 1.47 세였다. 학년은 저학년이 118명(49.0%), 고학년이 123명(51.0%)으로 고학년이 많았으며 종교 유무는 '유' 72명(29.9%) '무' 169명(70.1%)으로 무교인 학생이 더 많았다. 학과 선택 동기는 '자의' 83명(34.4%), '타의' 158명(65.6%)으로 '타의' 선택이 가장 많았다.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이 24명(10.0%), '보통'이 73명(30.3%), '만족'이 144명(59.8%)으로 '만족'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5점 만점에 $3.63 \pm .90$ 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29명(12.0%), '보통' 107명(44.4%), '만족' 105명(43.6%)으로 '만족'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3.36 \pm .83$ 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1)

Variable	Category	N(%)	M±SD
Gender	Male	74(30.7)	
	Female	167(69.3)	
Age	≤21	120(49.8)	21.90±1.47
	≥22	121(50.2)	
Academic year	Freshman, sophomore	118(49.0)	
	Junior, senior	123(51.0)	

Religion	yes	72(29.9)	
	no	169(70.1)	
Motivation to choose major	voluntary	83(34.4)	
	Others	158(65.6)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24(10.0)	3.63±.90
	Generally satisfied	73(30.2)	
	Fairly satisfied	144(59.8)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Dissatisfied	29(12.0)	3.36±.83
	Generally satisfied	107(44.4)	
	Fairly satisfied	105(43.6)	

3.2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평균 3.32±.53점,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2.87±.77점, 학업 성취도는 평균 3.44±.4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of study subjects (N=241)

variables	M±SD
Grit	3.32±.5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87±.77
Academic achievement	3.44±.4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성별 ($t=2.401, p=.017$), 학과선택 동기($t=3.497, p=.001$) 전공 만족도($F=7.629, p=.001$), 학교생활 만족도($F=12.8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과선택 동기가 '자의'가 '타의'보다, 전공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만족' 인 경우 그릿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준비 행동은 연령($t=2.161, p=.032$), 학년 ($t=2.161, p=.032$), 학과선택 동기($t=2.161, p=.032$), 전공 만족도($t=2.161, p=.032$), 학교생활 만족도($t=2.161, p=.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22세 이상이 21세 이하보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학과선택 동기가 '자의'가 '타의'보다, 전공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만족' 이 '불만족' 보다 진로준비 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는 학과선택 동기($t=2.161, p=.032$), 전공 만족도($t=2.161, p=.032$), 학교생활 만족도($t=2.161, p=.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학과선택 동기가 '자의'가 '타의' 보다, 전공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 이 '불만족' 보다 학업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Table 3.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41)

Variable	Category	Grit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3.44±.46	2.401(.017)	2.93±.84	.792(.429)	3.36±.47	-1.549(.123)
	Female	3.26±.55		2.85±.74		3.47±.49	
Age	≤21	3.32±.53	.029(.977)	2.73±.77	-2.818(.005)	3.48±.47	1.217(.225)
	≥22	3.32±.52		3.01±.75		3.40±.49	
Academic year	Freshman, sophomore	3.32±.55	.125(.901)	2.75±.78	-2.427(.016)	3.42±.49	-.378(.706)
	Junior, senior	3.31±.50		2.99±.74		3.45±.47	
Religion	Yes	3.35±.49	.690(.491)	2.92±.76	.662(.509)	3.40±.50	-.706(.481)
	No	3.30±.54		2.85±.77		3.45±.48	
Motivation to choose major	Voluntary	3.48±.57	3.497(.001)	3.02±.82	2.158(.032)	3.55±.45	2.629(.009)
	Others	3.23±.48		2.79±.73		3.38±.49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a	3.03±.57	12.739(.000) a,b<c*	2.46±.75	6.692(.001) a<b*	3.05±.50	26.801(.000) a,b<c*
	Generally satisfied ^b	3.17±.46		2.75±.70		3.24±.43	
	Fairly satisfied ^c	3.45±.51		3.00±.78		3.60±.43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Dissatisfied ^a	3.06±.58	13.110(.000) a,b<c*	2.51±.79	3.919(.021) a<c*	3.23±.52	17.554(.000) a,b<c*
	Generally satisfied ^b	3.21±.51		2.88±.75		3.30±.46	
	Fairly satisfied ^c	3.50±.47		2.96±.75		3.63±.42	

*Scheffé

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성취도는 그릿($r=.370, p<.001$), 진로준비 행동($r=.177, p=.006$)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N=241)

variables	Academic achievement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ρ)		
Academic achievement	1		
Grit	.370(<.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77(.006)	.322(<.001)	1

3.5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릿, 진로준비 행동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학과선택 동기(더미변수=타의), 전공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를 회귀 분석식에 투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868로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 한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공차의 한계는 .596-.902 이었고 분산팽창계수 값이 1.108-1.678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439, p<.001$). 학업 성취도에 영향이 있는 변수는 전공 만족도($\beta=.279, p<.001$), 그릿($\beta=.224, p=.001$)으로 2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N=241)

variables	B	SE	β	t	p
Motivation to choose major (Dummy=Others)	.021	.061	.021	.347	.729
Satisfaction with major	.151	.040	.279	3.810	<.001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063	.042	.109	1.521	.130
Grit	.205	.059	.224	3.491	.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06	.038	.009	.151	.880
F=15.43 p<.001 R ² =.24 Adj R ² =.23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을 살펴보고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3.32점, 진로준비 행동은 2.87점, 학업 성취도는 3.44점이었다. 그릿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10], Jung[12], Jin 등[13], Ko[22]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Salles 등[23]의 연구 3.65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보다는 의료인으로 배출되는 긴 과정을 극복하고 전공의로 선발되기까지 무던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만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준비 행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4],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25]의 연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26] 연구대상자의 평균 학업 성취도가 3.44점으로 중간 이하의 비교적 낮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낮은 진로준비 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했을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비보건계열인 경우 보건계열에 비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진로준비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남학생이, 학과선택 동기가 '자의'인 경우, 전공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등[12]과 Jin 등[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공통 변수로는 전공 만족도이었으며 성별과 학과선택 동기, 학교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전공 관련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력으로 양성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듯 그릿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라 할 수 있는데[8] 높은 전공 만족도가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진로준비 행동은 높은 연령, 고학년, 학과선택 동기가 자의인 경우, 전공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년과 전공 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Kim[15]의 연구결과와 연령,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Kang [2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Kim[15]과 Kang [27]의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보다는 심리적 변인, 환경적 변인, 학업 관련 변인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았다[28-30]. 이에 따라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을 사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 성취도는 학과선택 동기가 '자의'인 경우 전공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Kim 등[33]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자의에 의한 학과선택을 한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을 수 있고 전공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습동기가 높을 수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진로준비 행동,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성취도는 그릿, 진로준비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 13],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릿은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로 진로준비 행동과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목표지향적인 대학생활과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있는 요인으로는 전공 만족도, 그릿으로 2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 안경광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2],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3]와 유사하였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며 그릿이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작용하여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전공 만족도는 전공 관련 수업이나 전공에 대한 흥미나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법 적용과 보다 전문적인 전공 관련 교과과정을 통해 전공 만족도를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구조적, 환경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33]. 그릿이 높을수록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가 높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릿이 다양한 분야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되고 있지만 어떠한 요인들이 그

릿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공 만족도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다양한 학습전략을 모색하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 행동을 살펴보고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있는 요인으로는 전공 만족도, 그릿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국한하여 보건계열 대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향후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그릿, 전공 만족도로 나타났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

- [1] T. H. Kim, T. H. Yoon & Y. Kim.(2011). *A Study on the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1*, 49-57.
DOI:http://www.riss.kr/link?id=A100716991
- [2] M. H. Yang, M. J. Park & H. J. Kim.(2010). *The Effect of Congruence, Score Elevation &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rch, 29(2)*, 137-156.
DOI:http://www.riss.kr/link?id=A82400532
- [3] J. H. Lee & H. J. Jang.(2018). *Influence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n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35)2*, 454-462.
DOI:http://dx.doi.org/10.12925/jkocs.2018.35.2.454
- [4] J. H. Park & B. G. Yoon.(2018). *Capability of empathy and resilience among healthcare college students, The*

-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2)3, 117-129.
DOI:https://doi.org/10.14408/KJEMS.2018.22.3.117
- [5] K. S. Choi. (2010).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s intention to decide dropout*, *Korean Business Review*, (3)11, 96-118.
DOI:http://www.riss.kr/link?id=A82325123
- [6] I. H. Moon, J. N. Jeong & M. H. Seo.(2019). *Learnin Strategies Influencing factors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5, 407-416.
DOI:https://doi.org/10.14400/JDC.2019.17.5.407
- [7] S. M. Park, J. Y. Park & P. G. Kim.(2018).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s and College Adjust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9, 684-695.
DOI:http://dx.doi.org/10.5392/JKCA.2018.18.09.684
- [8] A. Duckworth.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Scribner*, 1-416.
- [9] J. Y. Jeong, Y. S. Seo, J. H. Choi, S. H. Kim, M. S. Lee, S. H. Hong, J. S. Choi & D. E.Park.(2019). *The Influence of Grit on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Involv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2, 181-190.
DOI:http://dx.doi.org/10.4040/jkan.2019.49.2.181
- [10] E. Jeong & M. R. Jung.(2018).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9-317.
DOI:http://dx.doi.org/10.14400/JDC.2018.16.9.309
- [11] B. Jin & J. Kim. (2017). *Grit, basic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8)1, 29-35.
DOI: https://doi.org/10.1027/1614-0001/a000219
- [12] M. R. Jung & E. Jeong.(2018).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6, 414-423.
DOI:http://dx.doi.org/10.5392/JKCA.2018.18.06.414
- [13] J. I Jin & N. C. Kim. (2017) *Grit, Acade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5-18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175
- [14] S. Y. Cho & S. S. Lee. (2006).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n the Korean Adult College Student' Education Attain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9)1, 127-140.
DOI:http://www.riss.kr/link?id=A101308915
- [15] H. S. Kim.(2019).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3, 25-41.
DOI:https://doi.org/10.32341/JCER.2019.09.32.3.25
- [16] S. E. Heo. (2016).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Society*, 7(4), 85-96.
DOI:http://dx.doi.org/10.15207/JKCS.2016.7.4.085
- [17] H. K. Cho & I. S. Jung.(2018)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25-32.
DOI:http://dx.doi.org/10.22156/CS4SMB.2018.8.3.025
- [18] A. Duckworth & P. D. Quinn.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19] J. L. Lee & D. H. Kwon.(2013).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23)11,245-264.
- [20] S. K. Park. (2013).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I:http://www.riss.kr/link?id=T13109772
- [21] Y. O. Park, S. J. Park & J. Hur. (2017). *A tudy on the Effects of Employment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Community Commitment, Job Seeking Efficacy, and Job Seeking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7)2, 103-124.
- [22] J. H. Ko & M. O. Gu. (2020). *Convergence Study on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tention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4, 369-380.
DOI:http://dx.doi.org/10.15207/JKCS.2020.11.4.369
- [23] D. S. Park. (2014).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Journal of digita convergence*,(12)10, 415-423.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415
- [24] J. M. Kim & J. C. Kim.(2019). *The Effects of Colleg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5, 273-288.
DOI:https://doi.org/10.24159/joec.2019.25.5.273.
- [25] B. W. Kim.(2010).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The Journal of Career Edu Research*. (23)4, 93-111.
DOI:http://www.riss.kr/link?id=A101308954
- [26] H. S. Kim. (2019).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32)3, 25-41.
DOI : 10.32341/JCER.2019.09.32.3.25

- [27] H. S. Kang.(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tress Confrontation Strateg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3)3*, 141-155.
DOI:http://www.riss.kr/link?id=A101308989
- [28] Y. Cho & J. Jeong. (2017).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30(3)*, 129-150.
DOI:10.32341/JCER.2017.09.30.3.129
- [29] M. J. Kim. (2016).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9)2*, 89-107.
DOI:http://www.riss.kr/link?id=A101929425
- [30] J. Park & K. Cho.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32(1)1*, 61-76.
DOI:10.32341/JCER.2019.03.32.1.61
- [31] M. H. Kang, S. H. Yoon, D .H. Kim & D. H. Ryoo.(2016).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ri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Major Interest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4*,109-129.
DOI:http://www.riss.kr/linkid=A102090679.
- [32] E. S. Seo & K. A. Chung.(2015).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Major, Adjusting to College Life and Self-Esteem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and Optic Science at a University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 Vis. SCI,(17)3*,213-215.
DOI:http://www.riss.kr/link?id=A104756124
- [33] Y. H. Kim.(2016).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1*, 104-113.
DOI:http://dx.doi.org/10.5762/KAIS.2016.17.11.104

윤 병 길(Byoung-Gil Yoon)

[정회원]



- 2012년 2월 : 충주대학교 (응급구조학 석사)
- 2017년 2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의학 박사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소생의학, 시뮬레이션

· E-Mail : ybksky@konyang.ac.kr

박 정 희(Jung-Hee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사)
- 2016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보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교육, 응급간호
- E-Mail : jhpug@konyang.ac.kr